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추수감사절 메시지

# 기억하라!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인생의 바쁜 걸음을 재촉하느라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Thank(감사)는 Think(생각)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인생의 굽이굽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이고  
오직 감사를 통해서 오는 참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샘솟듯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인생의 언덕위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별써 또 다른 계절을 알리는 마지막 잎새들이 떨어지는 이때에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주님이 주신 복들을 세어봅시다.  
하나, 하나 연필로 푹푹 눌러 쓰듯이 세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감사와 함께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 기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장로 임직을 받으며

# 귀히 쓰임 받는 그릇도

## 위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양춘경 피택장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45년만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유소년시절에 다니던 그 교회는 지금도 엄마함과 같이 포근함이 느껴지는 내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실과 당회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친근감과 접근성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45년전 등짐으로 세워진 붉은 벽돌 건물로된 본당은 지금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사회적으로 바쁜 분들이지만 교회에 잘 정착하고 기쁘고 즐겁게 교회일에도 동참할 수 있는 따스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괴롭고 힘들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 주셨으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입은 저로서는 어떻게 감사할지를 항상 기도 드리고 있으며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께 따뜻한 손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이다

최광성 피택장로

먼저는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민족을 향도하는 민족교회로, 세계를 섬기는 세계교회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무 한 일 없는 무익한 종을 피택 장로로 불러주시니 어찌 만감이 있은들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나의 명예와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다는 나의 영광으로 삼기 쉬운 어리석은 인간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앞으로는 저의 삶 전체를 바쳐 십자가 앞에 순종과 자기 부인을 배워가며, 일마다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좁고 곧은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는 결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의에서 정의로, 자신에서 이웃으로 서울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서울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겸손히 머리숙여 장로 임직에 임하겠습니다. Soli Deo Gloria!

## 무익한 종입니다

이계홍 피택장로

무지하고 연약하여 무익한 종입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딤후2:20)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의 유익을 말하고 겸손한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담임목사님의 하나님 목회에 두고 돕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약하고 소외되어 물러서있는 성도들을 잘 살피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끝까지 무익한 종이 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집사 임직을 받으며

##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권사 임직을 받으며



이지동 피택집사

지난 6개월간의 피택 집사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교육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욱 믿음이 성숙한 자신을 만나 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좋은 강의와 성경통독과 그동안 배운 것을 정리하는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깨우쳐갔으며, 마지막으로 마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인도하신것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출석하며, 숙제도 빠짐없이 제출하며, 마지막 시험과 면접과정까지 최선을 다한 피택집사님과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지혜가 많이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새벽부터 땀흘리면서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깨우치는 목사님과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교회에 많은 섬김과 봉사로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은 짐승같은 삶을 살면서, 많은 상처와 고통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것도 감사한데,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매일의 삶속에서 깨우쳐주시며, 삶속에서 영향력을 펼치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서 교회의 봉사를 하게 한 것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교육을 받고, 임직을 통해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가정에서와 직장에서도 모범이 되며, 교회에서도 굳은 일에 앞장을 섬으로 봉사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길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묵묵히 뒤에서 많은 후원과 지원을 해주었던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많은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13구원을 위하여 왔습니다. 자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 온 그해 창립기념(서은석 집사와 함께 이번에 임직 받았습니다. 피택을 받고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격 미달일 뿐이었고, 새벽 피택자에게는 사명감 이전에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

# 이소서

## 섬김과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최양진 피택장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피택장로 교육과 영성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훈련을 받으며 마음도 성령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드러지기 기뻐합니다.

다남은 부지깽이와 같은 쓸모 없던 저를 주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 양육하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신 이중운 원로목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으로 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 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했었을 일들을 찾아 삶으로 실천 하겠습니다 담임목사님의 하나님 목적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 받으고 협력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세대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부흥과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을 생명의 구원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 내 영혼의 닻을 지성소 깊은 곳에 내리게 하옵소서

이강진 피택장로

저는 교회의 직분과 직책을 맡을 때마다 디모데전서 1: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말씀을 따라 충성을 다짐하였는데 이제 장로 임직을 받으니 책임감에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목사님과 선배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서울교회를 강건한 청년으로 반석 위에 세워놓으신 높으신 경륜을 본받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의 사명완수를 위하여 진력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및 전도에 솔선하고 부지런히 헌신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하늘에 예비 된 소망의 기업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할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정책 등에 대하여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서울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교육과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감당하며,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김미성 피택권사

년이나 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모르며 교육을 위해 대치동에 이사왔지만 아버지께서는 저의 가장 긴급하고 간절한 구원을 먼저 예정해 두셨는데 주일에 교회 첫발을 내딛었던 남편의 믿음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무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되돌아 보니 모든 것마다 앞도리면 눈물뿐이었습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담임 목사님과 대화의 시간에는 권사로서의 교회에 대한 사명과 무릎으로 섬겨야겠다는 뜨거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항존직분자로서 처음 결심했던 자제와 헌신의 열심을 유지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또 짝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자녀들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계대를 온전히 이어가도록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남편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복음의 빛진자로 10년동안 70인 축호전도대를 섬겨왔습니다. 이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무한한 사랑으로 위로해주시고 아껴주신 수많은 얼굴들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중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71]

(문 69) 여호수아 3:17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이미 요단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10-11에 의하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 : 수3:17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4:4에서는 여호수아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 열둘을 가져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 중 열둘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둘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어 후대에 기념비로 삼게 한 것입니다.

수4:10-11은 이 사건의 결론으로 제사장들은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그리고 돌을 수집하여 세우기까지 그대로 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고 백성은 빨리 건너갔고 백성들은 그들 옆에 큰 성벽처럼 쌓인 돌벽을 보면서 홍해의 기적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 넘었으니 전체는 이 백만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1마일(1.6km) 폭으로 행진했다면 전부가 건너는데 반나절이나 되는 긴 시간이 걸렸을 터이니 이 긴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두 건너 후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간 백성들이 지켜보며 또 영접하는 중에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급류로 흐르던 요단 물이 제사장의 발이 닿자 멈추고 역류하여 상류지방으로 밀려가 여러고에서 20km정도 상류지방인 사르단 부근 아담성읍까지 큰 바다를 이루었던 것입니다.(수3:16)

그러나 상류지방과는 달리 제사장들의 발이 닿은 지점은 물이 없어지고 마른땅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지나 여러고를 향해 그대로 행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과 4장은 전혀 마찰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건의 기록인 것입니다.

(문 70) 여호수아6장의 기록처럼 여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 포위되었던 사건은 현대 고고학적 발굴단이 Tell es-Sultan에서 조사한 바로는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답) : Tell es-Sultan 즉 구약시대 여러고가 있던 지역에 제4도시와 연결된 무덤들은 주전 1400년대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1446년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때와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 John Garstang은 이 공동묘지의 무덤에서 많은 돌 부조들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것들은 애굽의 Amenhotep3세(1412-1376 BC)이후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엔 후기 바로의 건축문양이 담긴 돌 부조가 없었습니다. 제4도시의 멸망이 13세기 중엽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현대 고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Amenhotep3세와 Ramses 2세 사이에 있었던 많은 바로들이 통치하던 중에 돌 부조는 없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더욱이 이 공동묘지에서는 15만 조각의 항아리 깨진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질그릇 한 조각만이 미케네(Mycenean)문화의 형태였습니다. 미케네 문화가 팔레스타인에 도입된 것은 1400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 공동묘지가 1400년경 폐지된 것이 아니라면 제4도시에서 미케네 문화의 흔적이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설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Kathleen Kenyon의 Tell es-Sultan에 대한 연구는 Garstang의 제4도시와 무너진 성벽을 같은 것으로 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땅속에서 발견된 질그릇 조각들은 1400년 이전의 것으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현상이 서바나의 Abila성이나 불란서의 Carcassonne성에서도 찾아집니다. 그 성들은 우리들 세대에 일어난 지진으로 평지가 되었지만 이성들은 수백년 전에 수축된 것으로 우리세대에 쌓은 증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Kenyon이나 Vincent같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1250년 이전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호수아 6장의 여러고성 멸망은 역사적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 계속)

# - 감사 · 감사 · 감사 -

## 오늘은 교회창립기념주일 · 추수감사절

### 제11대 장로 · 12대 집사 · 11대 권사 임직

주일 | · II · III 예배 시 성찬식  
찬양예배 시간, 장로 / 집사 / 권사 임직식 거행

우리교회는 오늘 교회 창립기념주일 및 추수감사절로 함께 지킨다.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과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며, 찬양예배시간에는 제11대 장로 · 12대 집사 · 11대 권사 임직식을 한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교회창립기념주일 및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11대 장로**  
양춘경 최광성 이계홍 최양진 이강진

**12대 집사** : 박상운 최관목 최명남 김영화 임종태 김규환 이기일 정용문 김희동 이경수 송광호 김기욱 손종근 정완진 권성열 박권준 송용훈 이택진 이태승 박덕호 서은석 임우택 조상환 고석태 최재식 이선표 김주년 최승환 오세복 김은석 정승주 이상호 이지동 이민호 장상국 김두일 정철웅 장윤기 한상욱 권재현 노장훈 한상혁 이점순 최광혁 (44명)

**11대 권사** : 선순례 최향숙 박인자 배옥선 홍건표 조복자 진경자 윤금자 신순자 박시향 김은주 이상설 장향자 이건희 박공순 임인선 유선희 강창숙 김춘호 김애순 조명옥 소만수 박정자 장기숙 이은미 임영숙 문분순 조미환 김경진 김필임 강명신 백정숙 김순영 진교숙 장오람 이인숙 김보경 현승희 박옥 김치덕 박혜선 김혜란 김명순 최은석 이명신 오가연 이상은 이현주 김정재 제오복 윤용미 김희순 이정희 김미성 이혜선 김동진 송경옥 송미령 송금자 박길자 (60명)

그레이트핸드벨 파이어  
제3회 정기연주회  
Grace Handbell Choir The 3rd Concert

2012년 12월 2일 (주일) 저녁 5:00  
서울교회 본당

지휘 송재철  
오르간 임우석 피아노 김영인 타악기 윤용현  
콜라리네 임병환 해금 고요한 관조 대전연드림리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호산나 대학 추수감사 예배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지난 11월 20일(화) 호산나대학 아침 경건회가 호산나대학 찬양대의 찬양과 유문건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예배로 진행이 되었다.

이날 추수감사예배를 위해 호산나대학 학생들은 다양한 과일과 물품들을 헌물하였다.

특히 교양학부 윤대호 학생의 부모님은 직접 농사하신 쌀 10포대를 추수감사예배를 위해 보내주셨다.

추수 감사예배에 헌물로 바쳐진 물품들은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가평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가평군청, 청평과출소등의 관공서에 직접 전달하였다.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5일(주) 서울교회 임직예배 설교를 한다. 28일(수) 세브란스 사랑의 모임 설교를 한다. 30일(금)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총회 축도를 한다. 12월 1일(토) 사랑의 쌀운동 조찬기도회 설교, 울란바타르대학 이사회 설교를 한다.

■ 연주회: 김여정 피아프오르간 독주회(임마뉴엘 찬양대 오르간리스트), 영산아트홀 11월27일(화) 오후 7시30분

■ 독창회: 15교구 신모란 성도, 12월 3일(월)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

■ 수상: 3교구 이승현 성도, 2012 한국발레협회 당쉬르 노브르상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전도회(11.25) 뱀피전도회(12.2)

■ 금주의 식사, 떡제공: 임직자 일동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지난 21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뜻을 이루드리는 서울교회 되도록
2. VIP초대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과 결신하신 분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시도록
3. 장로와 집사, 그리고 권사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셔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부흥할 수 있도록

## 『주일, 삼성로주차 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우리교회는 강남구청의 협조를 얻어 주일예배시간에 삼성로변에 주정차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의 막무가내식 압제 주차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해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삼성로 주정차가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 (예: 교회에서 세운 주차금지 표지를 옮기고 주차, 아파트 진출로에 바싹 붙여서 주차하여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측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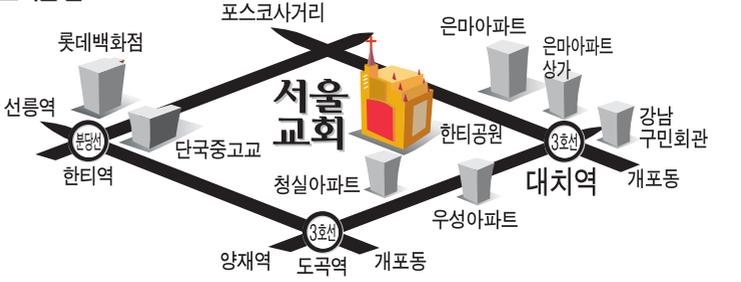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위험 발생, 횡단보도 주차 등)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켜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주일 삼성로 주정차 시 버스정류장 표지 전후 각 10M 씩과 횡단보도 등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되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

### ■ 서울교회QR코드



### ■ 교회오시는 길



###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영어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   |
| 수요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
| 세벽기도회 | 오전 5시30분       |